

# 조선후기 상류주택 실내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색채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Interior Color and It's Harmony  
at the Late Chosun Dynasty's Upper Class Houses

박효철\* / Park, Hyo-Ch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ymbolic meaning of interior color at the Chosun Dynasty's upper class houses, and to review it from a point of view of the Western coloring harmony theory.

From this study, the Oriental philosophy, the ideas of Confucianism, and the ethnic traits influenced the interior color of the Chosun Dynasty's upper class houses like an-bang or sarang-ba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main color, auxiliary color, accent color were harmonized with similar harmony by hue and with contrast harmony by value and chroma.

Therefore, interior color image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should be applied to the various design field as well as modern interior design.

키워드 : 전통색채, 색채조화, 五方色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우리 전통주택의 외부와 그 내부는 편안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거부감을 주지 않는 편안한 느낌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주택의 색채 이미지는 소박하고 은근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 여러 디자인 분야 색채계획에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근래에 전통주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배치기법, 구조, 형태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 또한 보존에 한층 힘을 기울여 전통주택 외형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색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색되고, 주택의 내부 마감재나 색채를 후손들이 현대적인 마감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므로 그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따라서 더 훼손되기 전에 전통주택의 색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색채가 과연 시대적 사상, 종교 그리고 민족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조선시대 주택의 실내색채를 서양의 조화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서양의 이론으로 조화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조화된다면 현대건축의 내부 또는 외부색채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디자인 분야에 응용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1.2.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에서는 첫째, 조선시대의 시대적·사상적·종교적 특성을 검토하여, 이것이 현재 보존 또는 재현된 전통주택의 실내색채에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문(P. Moon)과 스펜서(D. E. Spence)의 정량적 색채 조화론을 연구해, 전통주택 실내색채가 서양의 색채조화론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사례조사는 창덕궁과 남산 한옥마을에서 축색되었다. 주조색 또는 보조 색으로 작용하는 바닥, 벽, 천장, 창호재, 구조재의 색채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낙선재와 연경당에서 축색되었으며, 보조색 또는 엑센트 색으로 작용하는 가구류와 생활소품(보료, 방석, 장침, 단침, 병풍)들의 색채는 남산 한옥마을 박영효 가옥에 재현된 안방(노모방)과 사랑방을 중심으로 축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낙선재, 연경당, 박영효 가옥에 사용된 목부재들의 색채는

\* 정희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대부분 축조당시 재료로 예상되지만, 바닥·벽·천장의 마감재는 수차례에 걸쳐 보수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탈색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박영호 가옥의 가구와 생활소품들도 재현과정에서 소재와 색채의 근소한 오차가 예상된다. 하지만 축색시점이 현재이므로 탈색에 의한 오차, 재현과정의 오차는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시감측색법에 의한 색채추정으로 오차가 예상되지만, 이는 무시한다.

셋째, 실내색채는 조명조건·축색 위치·실의 크기 등에 따라 오차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맑은 날 인공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축색되었으며, 1~2m 거리에서 축색되었으나, 실의 크기와 차원은 고려되지 않았다.

## 2. 조선시대 실내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색채 조화론의 이론적 고찰

### 2.1. 오방색의 주술적 의미

한국민족은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응해 생활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요소뿐만 아니라 상징적 수단으로 색채를 이용하였다. 즉 한국 전통사회에서 색채는 우주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는 음양오행사상체계에 따라 형성되었다. 이는 음과 양 두 개의 상반된 성질의 대립과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만물의 생성발전을 설명하는 음양설과 만물을 금목수화토의 5요소를 본 오행설이 결합된 사상으로 이들의 상생상극으로 전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사상이 의미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방색과 의미

| 음양 | 오행 | 방위 | 오색 | 의미  |
|----|----|----|----|---|
| 양  | 목  | 동  | 청  | 청색의 우리말은 파랑으로, 나무, 하늘, 동쪽, 탄생, 젊음, 영원, 평화를 의미한다. 악귀를 쫓는 의식에 빨강과 파랑을 사용하는 것은 동쪽과 남쪽의 색이 양색(陽色)이므로 음색(陰氣)인 악귀를 쫓는데 유효했기 때문이다. 또한 푸른 나무, 푸른 바다, 푸른 산, 푸른 하늘에서와 같이 청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
| 양  | 화  | 남  | 적  | 적색의 우리말은 붉은 색으로 태양과, 불과 피는 붉고, 밝고, 따뜻하여 생명의 근원, 고귀함, 행복, 기쁨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다.  |
| 중성 | 토  | 중앙 | 황  | 황색의 우리말은 노랑으로 땅, 중앙, 황제, 권위를 의미한다. 황색이 의미하는 중앙이라는 뜻에는 편평하고 늘 젖어 있어서 만물이 잘 자라는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대사회에서 중국을 중앙문화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전용되었다.                                 |
| 음  | 금  | 서  | 백  | 백색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는 햇빛을 백색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되어 신성, 길할 조짐을 뜻한다. 백색의 '白'자도 '일(日)'자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내리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태백산, 소백산의 '백산(白山)'도 신성하게 여기는 태양빛, 즉 하늘의 뜻을 받은 성산(聖山)을 의미한다.                     |
| 음  | 수  | 북  | 흑  | 흑색의 우리말은 검은 색으로 중국에서는 현색(玄色)이라고 한다. 북방의 흑색은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흑색은 다른 색과 비교해서 깊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색의 가치나 이미지도 다른 것과 대립해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

음양오행사상의 색채체계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五方)으로 이루어지며, 이 오방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정색(正色)이 있다. 이 정색은 청, 적, 황, 백, 흑이며, 이를 오방색(五方色)이라 부른다. 또 정색과 정색사이에는 간색이 있다. 즉 동과 서 사이는 벽색(碧色), 동과 중앙 사이는 녹색, 남과 서 사이는 홍색, 남과 북 사이는 자색, 북과 중앙 사이는 유황색(硫黃色)이다. 이 정색과 간색을 합한 열가지 색을 한국의 전통 기본 색이라 한다.

일상생활에서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오방색(五方色)의 예를 들면, 악귀를 쫓고 병을 예방하는데 양(陽)의 색인 적색과 청색을 사용하였다. 무병장수를 비는 주술적인 색채의식이 나타난 예로는 색동옷을 들 수 있다. 색동옷에는 오방색의 청색, 적색, 황색, 그리고 음을 상징하는 백과 흑 대신에 분홍과 초록이 사용되었다. 혼인하는 신부에게 녹색 저고리에 적색 치마인 녹색홍상(綠衣紅裳)을 입히는 관습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붉은 주작(朱雀)이 남쪽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나, 단오에 붉은 색 과죽을 쑤어 문짝에 뿌리고, 입훈이나 단오에 붉은 색 부적을 벽이나 문에 붙이는 풍습, 장독대 가장자리에 붉은 고추와 솥을 새끼줄에 꿰어 두르는 풍습,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빨간 고추를 여러 개 꽂은 금줄을 대문 앞에 걸어두며, 봉선화로 빨갛게 물들이는 풍습 등은 적색이 잡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sup>

### 2.2. 유교와 민족특성이 미친 색채사용특성

조선시대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을 지배했던 유교는 인간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인격, 형식, 규범 등을 중시하는 사상이어서 색이 있는 것은 천하고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겨 궁궐조차 화려하게 짓기를 자제하여 단청을 하지 않는 전각들이 지어졌으며, 만일 단청을 하더라도 화려하지 않았다. 또 계급에 따라 의복 색에 대한 금기사항이 많아 서민들은 모두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색채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색의 사용이 지나치게 금지된 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여자들의 색 속옷이나 화려한 색의 노리개, 그리고 풍자적 화법의 민화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백색이 사용된 예로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백색에 대한 지향성을 색채의 규제 때문 만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은 장식이 나 기교를 절제하여 높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려는 의지에서 백색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의 순백이라는 용어나, 백색을 상징하는 학이 고귀함이나 선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민족의 백색에 대한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sup>2)</sup> 또 아기가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하얀 백설기를 백 집에 돌리는 관습이나, 혼인날 흰 국수를 먹는 관습은 백색이 출생의 신성함, 햇빛과 같은 밝은 앞날을 기리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연유한다.

1) 박영순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p.160

2) 박영순외, 앞의 책, p.161

그러나 백색의 통칙을 깨고 색으로 꾸며진 옷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첫째는 왕이나 귀족과 같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자주 아름다운 빛깔의 옷이 있었다. 둘째는 잔치나 명절과 같이 서로 기뻐할 때에 화려한 옷을 입는다. 셋째는 순진한 세상의 고통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빛깔의 옷을 입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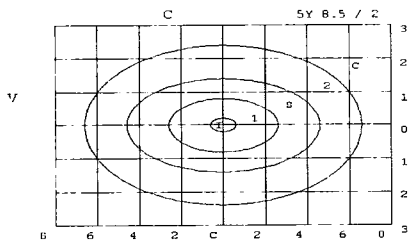
### 2.3. 색채 조화론

전통주택 실내 색채를 서양의 조화론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P. Moon)과 스펜서(D. E. Spence)의 색채조화 이론을 검토한다.

미국 건축학자인 문(P. Moon)과 스펜서(D. E. Spence)는 종래의 감성적으로 다루어 졌던 색채조화론의 미흡한 점을 제거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량적 방법에 의해 조화이론을 정립했다.



<그림 1> 멘셀 색상환에 있어서 조화와 부조화 영역



1 동일 S 유사 C 대비 1. 제1부조화 2. 제2부조화

<그림 2> 멘셀 동색상면에서 있어서 조화와 부조화 영역

#### (1) 조화와 부조화의 식별

문과 스펜서는 색상과 명도, 채도에 의한 조화와 부조화 범위를 <그림 1, 2>와 같이 설명하였다. 부조화 영역을 색상환 위에서 각도로 보면, 제1부조화 영역은 1~25°이며, 제2부조화 영역은 43~100°에서 일어난다. 색상과 마찬가지로 명도차이와 채도차이에 의해 조화와 부조화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①동일 색상일 때는 어떤 색상에 대해 명도차이와 채도차이가 큰 편이 조화된다. ②유사색상에서도 명도와 채도차이가 큰 편이 조화된다. ③대립색상일 경우는 명도와 채도차이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화되기 어렵다. ④부조화된 색상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명도와 채도차이가 있으면 조화될 수 있다.

#### (2) 美度(배색이론)

문과 스펜서는 색채조화에 관한 미감의 척도를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아름다움의 정도를 비록호프(G. D. Birkhoff)의 《미감의 척도 (Aesthetic Measure:1933)》에서 보여준 공식을 사용하여 수량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미는 복잡성에 있어서 질서를 가진다.”라는 G. Th.페히너의 명제를 분석한 비록호프는 미감의 척도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제안하였다: “ $M=O/C$ ”가 바로 그것인데, 이때 M은 미감의 정도, 즉 미도, O는 질서의 요소(element of order), C는 복잡성의 요소(element of complexity)를 나타낸다. 이 공식에 의하면, 복잡성의 요소가 최소일 때 미도는 최대가 된다. 이것은, 아름다움은 복잡하지 않고 질서를 확립해 나갈 때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문과 스펜서는 이 공식을 배색에 적용시키고 있다. 복잡성의 요소, 즉 C를“(색수)+(색상차이가 있는 색의 조합수)+(명도차이가 있는 색의 조합수)+(채도차이가 있는 색의 조합수)”에 의해 구한다. 그리고 질서의 요소인 O를 구하기 위해서, 배색된 색채를 서로간의 관계에서 3속성별로 동등, 제1부조화, 유사, 제2부조화, 대비, 눈부심의 여도에 해당하는지를 두 개씩 쌍으로 조사하여 얻어진 수에다 미적 계수를 곱하여 그 전부를 더한다. 미적 계수는 <표 2>에서 구한다.

<표 2> 미적 계수<sup>3)</sup>

| 부조화와 조화<br>멘셀표색계 | 동등    | 제1부조화 | 유사    | 제2부조화  | 대비    | 눈부심  |
|------------------|-------|-------|-------|--------|-------|------|
| H(색상간격)          | + 1.5 | 0     | + 1.1 | + 0.65 | + 1.7 | - 20 |
| V(명도간격)          | - 1.3 | - 1.0 | + 0.7 | + 0.2  | + 3.7 |      |
| C(채도간격)          | + 0.8 | 0     | + 0.1 | 0      | +0.4  |      |
| G(회색의 조합)        | + 1.0 | -     | -     | -      | -     |      |

예를 들면, “10YR8/14”와 “10R5.5/14”를 조화시키면  $C=2+1+1+0=4$  이고,  $O=1 \times 1.1 + 1 \times 3.7 + 1 \times 0.8 = 5.6$  이 된다. “ $M = O/C$ ”의 공식에 대입하면,  $M = 5.6/4 = 1.4$ 이다. 미도가 0.5 이상이면 좋은 배색이므로, 만족할 수 있는 배색이다.

### 3. 조선시대 상류주거 실내공간의 색채조사 및 분석

#### 3.1. 측색방법 및 결과

전통주택의 각 부위별 색채 측정은 시각 측색법<sup>4)</sup>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측색에 사용된 색표는 공업진흥청과 한국방송공사가 멘셀 시스템에 의해 제작한 실용 한국 표준 색표 집을 사용하여 측색하였다. 1998년 12월 2일에 연경당과 낙선재를, 그리고 12월 20일 13:00~16:00에 남산한옥마을 박영호 가옥을 측색했으며, 측색 결과는

3)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창미, 1984, p.164

4) 시각측색법 ; 측색대상과 표준색표를 대조하여 조사자가 육안으로 동일한 색을 찾아내는 방법

번선표색 기호로 표기하여, 이를 <표 3>,<표 4>,<표 5>과 같이 구조색, 보조색, 엑센트색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러나 추색시 실제 색과 일치하는 색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색 표본에서 가장 근사한 색으로 간주하며, 목재와 같이 여러 색이 혼합된 소재의 추색은 5~6m정도 거리에서 평균 색을 추색하였다.



<그림 3> 박영호 가옥의 안방(노모방)과 사랑방

<표 3>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 구조색(바닥, 벽, 천장) 현황

| 구분      | 낙선제  | 연경당     | 비고                          |
|---------|------|---------|-----------------------------|
| 안채, 사랑채 | 방 바닥 | 25Y7/6  | 5Y8/4(사랑채)                  |
|         | 벽    | 5Y8.5/2 | 5Y8.5/2(사랑채)<br>5Y8.5/1(안채) |
|         | 천장   | 5Y8.5/2 | 5Y8.5/2(사랑채)<br>5Y8.5/1(안채) |

<표 4> 박영호 가옥 안방·사랑방의 실내 보조색 현황

|         |   |  |  |
|---------|---|--|--|
| 안방(노모방) | 높 1: 5YR5/6<br>연상: 5YR4/4<br>탁자장1: 7.5YR3/4 | 높 2: 7.5YR3/4<br>빗집: 7.5YR2/2<br>탁자장2: 5YR3/4    | 책상: 7.5Y3/2<br>좌강: 7.5YR5/2<br>병풍(구조색): 7.5YR7/2 |
| 사랑방     | 책상: 5YR4/4<br>장2: 7.5Y4/4<br>탁자장: 7.5YR3/4  | 연상: 7.5YR4/4<br>보대: 2.5YR3/4<br>병풍(구조색): 10YR8/4 | 장1: 2.5YR3/2<br>고비: 2.5YR3/2                     |

<표 5> 박영호 가옥의 실내 엑센트색 현황

|         |   |  |
|---------|---|--|
| 안방(노모방) | 방석: 7.5R4/12 + 5PB3/6<br>족자: 7.5R5/10 + N3<br>가구 장식물: 2.5Y7/6 | 보료: 7.5R4/12 + 5PB3/6<br>병풍(엑센트 색): 2.5YR7/4 |
| 사랑방     | 방석: 5Y8/2 + 5BG5/1<br>병풍(엑센트 색): 5PB3/4                       | 보료: 5Y8/2 + 5BG5/1<br>가구 장식물: 2.5Y7/6        |

### 3.2. 오방색과 실내색채 상관성 해석

상류주택의 실내공간인 안방과 사랑방에 사용된 색상이 방위와 관계가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방과 사랑방에 사용된 색을 음색(陰色)과 양색(陽色)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건축적 요소(바닥·벽·천장)에 사용된 색을 음색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장식품이나 생활소품에 사용된 색을 양색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낙선제와 연경당에서 추색된 방의 바닥, 벽, 천장 색의 범위는 색상: 7.5YR~5Y, 명도: 6~8.5, 채도: 1~4로 이것은 고명도·저채도로써 옅은 색인 흰색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낙선제와 연경당에서 추색된 창호의 틀이나 샢의 색과 남산 한옥마을 가구류의 색은 10YR4/1, 5YR4/4, 7.5YR3/2, 2.5Y4/2, 2.5YR5/2 등과 같이 저채도 색으로 옅은 색에 가깝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바닥, 벽, 천장의 건축적 요소에 양색을 사용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안방(노모방)에 사용된 방석이나 보료, 병풍 그리고 장식품에서는 양색인 적색(7.5R4/12)과 남색(5PB3/6)을 사용하였다.

위 결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 외부에 사용된 색(특히 기와 색)을 포함해 건축적 요소는 음색을,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장식품 일부에 양색을 사용한 것은, 방위와 관계없지만 오방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추후 많은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3.3. 유교와 민족특성이 미친 실내색채 상관성 해석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색채사용의 제한과 백색을 선호하는 민족특성으로 인해 전통색채를 소박하다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박영호 가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류주택 실내 내부(특히 안방)에서 일부 화려한 색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유교사상의 색채제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적 요소인 바닥, 벽, 천장 마감재료는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고명도 저채도의 무채색으로 하고, 다만 실내의 가변적 요소인 방석, 보료, 장식품 등은 제한된 색채 사용에 대한 반발로 순색에 가까운 고채도 색상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공간인 안방의 고명도 저채도의 은은한 구조색과 채도가 높은 엑센트 색은 화려한 느낌의 색채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 내부색채가 소박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공간인 사랑방에서도 고명도 저채도의 구조색과 저명도·저채도의 방석, 보료, 가구의 명쾌한 명도대비는 활기찬 색채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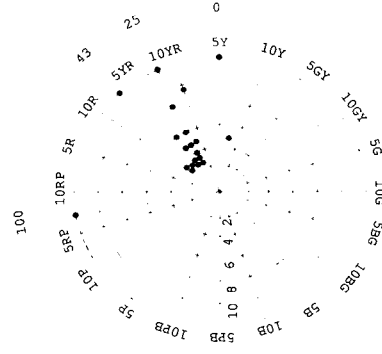
둘째는, 백색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구조색을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백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고, 오방색의 주술적 의미로서 고채도 또는 저명도 색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사려된다.

셋째는 집주인의 색채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주택내부의 일부 화려한 색채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려된다.

한편 생활 경제적 어려움과 염색 기술의 부족 그리고 염료를 제조하는 자원결핍이 우리 전통주택 색채환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주거공간을 조성할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서민들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조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 주변에서 얻은 재료인 창호지(YR계열의 고명도 저채도)와 목재(YR계열의 저명도 저채도)에 의해 무채색에 가까운 색채환경을 형성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4. 상류주택 실내색채의 색채 조화론적 분석

우리 전통주택의 실내 색채는, 건축적 요소와 장식품 그리고 가구의 색에 의해 결정되며, 이곳에 사용된 색은 목재나 석재처럼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연으로부터 추출한 안료나 염료로 착색해서 사용하였다.

전통주택의 실내공간에 사용된 색채가, 대부분 조성되는 건축물 주변에서 조달된 재료에 의해 축조되었으므로 정성적 측면에서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연환경 가운데 생활하면서 숙지된 배색들을 사용하는 것은, 관찰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조화된 배색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주택의 실내에 사용된 색이 Y~YR계열에 집중되어 명도와 채도 차이만을 보이는 것은 동류의 원리와 질서의 원리에 의해 조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다, 벽, 천장의 고명도 저채도 YR계열의 색과 같은 계열의 가구나 창호의 저명도, 저채도의 확실한 명도차이 그리고 보료, 방석, 병풍에서 고채도의 색채는 애매하지 않은 조화(비모호성의 원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주택 실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색채계획은 정성적 색채조화론 측면에서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량적 방법으로 조화되는지를 문(P. Moon)과 스펜서(D. E. Spence)의 조화론에 의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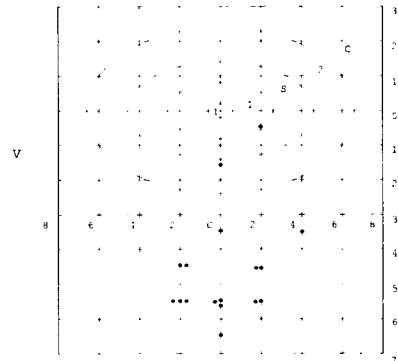
#### (1) 조화와 부조화의 식별

낙선재와 연경당 안채와 사랑채의 주조색으로 작용하는 바다·벽·천장의 색채와 보조색, 액센트색으로 작용하는 가구와 생활용품 등을 정량적 방법으로 검토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3-2은 안방과 사랑방 주조색과 보조색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림3-3는 주조색과 액센트 색과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바다·벽·천장의 색채는 표3-1에서와 같이 2.5Y7/6, 5Y8.5/1, 5Y8.5/2, 5Y8.5/4로서 색상·명도·채도 모든 면에서 근사하므로 여기서는 그 빈도가 가장 높은 5Y8.5/2를 안방과 사랑방 주조색 기준으로 하였다.

-색상비교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작용하는 안방·사랑방가구는 주조색 5Y8.5/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책상(7.5Y3/2), 장(7.5Y4/4), 병풍(10YR8/4)를 제외하고는 유사조화 범위에 든다.

-주조색과 보조색의 명도와 채도 차에 의해서는, 병풍(7.5YR7/2)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비조화 범위에 든다.

-색상비교에서 주조색과 액센트색으로 작용하는 안방·사랑방 생활용품 또는 장식품들은 대부분 대비 또는 유사 조화되지만, 안방의 보료와 방석의 7.5R계열이 제2부조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들은 명확한 채도 차에 의해 조화된다.



1. 동일 S 유사 C 대비 1. 제1부조화 2. 제2부조화  
 <그림 4> 안방·사랑방의 주조색과 보조색의 관계

-주조색과 액센트 색의 명도·채도 차에서는 사랑방 방석(5Y8/2; 제1부조화), 가구 장식물(5Y8/2; 제2부조화)을 제외하고는 대비 조화된다.

따라서 안방·사랑방의 주조색과 보조색 그리고 액센트 색은, 색상 측면에서는 유사 조화되고, 채도와 명도 측면에서는 대비조화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美度

낙선재와 연경당 안채와 사랑채 방의 주조색(5Y8.5/2)을 기준으로 대표적 보조색 7.5YR3/4와 액센트 색 7.5R4/12, 5PB3/6, 5BG5/1의 미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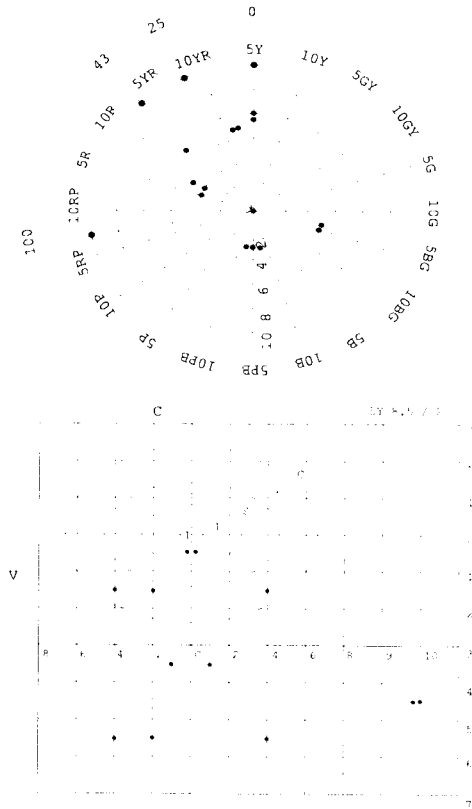
-주조색 5Y8.5/2와 보조색 7.5YR3/4;  $C=2+1+1=5$ ,  $O=1.1 \times 1 + 3.7 \times 1 + 0.4 \times 1 = 5.2$ ,  $M=O/C=5.2/5=1.04$ 이므로 이 배색은 좋다.

-주조색 5Y8.5/2와 박영효 가옥 노모방 액센트 색 7.5R4/12;  $C=2+1+1=5$ ,  $O=0.65 \times 1 + 3.7 \times 1 + 0.4 \times 1 = 4.75$ ,  $M=O/C=4.75/5=0.95$ 이므로 이 배색은 좋다.

-주조색 5Y8.5/2와 박영효 가옥 노모방 액센트 색 5PB3/6;  $C=2+1+1=5$ ,  $O=1.7 \times 1 + 3.7 \times 1 + 0.4 \times 1 = 5.8$ ,  $M=O/C=5.8/5=1.16$ 이므로 이 배색은 좋다.

-주조색 5Y8.5/2와 박영효 가옥 사랑방 액센트 색 5BG5/1;  $C=2+1+1=5$ ,  $O=1.7 \times 1 + 3.7 \times 1 + 0.4 \times 1 = 5.8$ ,  $M=O/C=5.8/5=1.16$ 이므로 이 배색은 좋다.

따라서 질서의 요소와 복합성의 요소에 의해 검토한 주조색과 보조색 그리고 주조색과 액센트 색과의 관계는 모두 만족할 만한 배색으로 평가된다.



I 동일 S유사 C 대비 1. 제1부조화 2. 제2부조화  
 <그림 5> 안방·사랑방의 주조색과 엑센트 색과의 관계

#### 4. 결론

조선시대 상류주거 실내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이를 조화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낙선재, 연경당, 남산 한옥마을 박영효 가옥의 내부색채를 집중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전통주택의 안방과 사랑방에 사용된 색채는 주조색·보조색·엑센트 색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의 공간인 안방은 주조색과 보조색이高明도·저채도, 저명도·저채도이지만 고채도의 엑센트색에 의해 화려한 느낌을 주고,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대비조화에 의해 중후한 느낌을 준다. 조사된 주택 안방의 건축적 요소(바닥·벽·천장)를 음색(陰色)으로 해석하면, 일부 장식품이나 생활용품류에 사용된 색을 양색(陽色)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추후 많은 사례조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된 주택의 실내색채와 방위와의 관련은 찾을 수 없었다.

2. 전통주택의 실내색채는 명도대비와 함께 안방은 일부 화려한 색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유교의 색채제한에 대한 반발로 가변적 요소로 작용하는 실내생활소품들은 순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백색을 선호하는 민족특성 때문에 주조색은 재료가 가진 그대로의 백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고, 고채도 색상은 오방색의 주술적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

가 사려되며, 또한 집주인의 개인적 색채취향도 반영되었으리라 사려된다.

3. 주조색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닥, 벽, 천장의 색채와 가구는 색상, 명도, 채도 모든 측면에서 대비조화 범위에 포함되나, 주조색과 엑센트 색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석, 보료, 장식품의 7.5R계열은 색상에서 제2부조화 범위에 든다. 그러나 이들은 명확한 채도 차이에 의해 대비조화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안채와 사랑채 방의 주조색과 보조색, 주조색과 엑센트 색의 미도는 모두 0.5이상으로 문과 스펀서의 제 3의 법칙에 의해 조화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실내색채는 음양오행사상, 유교사상, 민족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사려되며, 실내색채를 정량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의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가 전통 상류주택 색채이미지가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이유이며, 이 이미지를 현대건축 내·외부뿐만 아니라 각종 디자인 분야 색채배색에 적극 활용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87
2. 신영훈, 한옥의 조형, 대원사, 1989
3. 주남철, 한국 건축미, 일지사, 1995
4. 주남철, 한국 건축의장, 일지사, 1999
5.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6.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7. 박언근, 한국건축사 강본, 문운당, 1997
8. 강명구, 건축 의장론, 문운당, 1996
9. 김영주, 단청, 대원사, 1991
10. 최영훈, 색채학 개론, 1987
11. 박영순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12. 박영순,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13. 小林重順, 色彩センスの新開發, タヴィッド社, 1997
14. 日本色彩學會編, 新編 色彩科學ハンドブック, 東京大學出版會, 1998
15. 南治嘉, カラーテクニック活用チャートブック 色彩活用, グラフィック社, 1998
16. 大井義雄 川崎秀昭, カラーコーディネーター入門 色彩,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1996
17.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18. 박돈서, 한국 현대건축 외장의 색채 계획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19. 신인호,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 색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1998
20. 이형택, 한국건축의 단청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88.4
21. 박효철, 자연에 내재하는 황금비례와 색채조화에 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996.8

<접수 : 1999. 7. 31>